

어린이도서 서평에 관한 연구

- 독서교육 관점에서의 접근 -

A Study on the Book Reviewing Children's Books

- Approach to Perspective in Reading Education -

민 경 록 (Min, Kyeong-Rok)*

◁ 목 차 ▷

1. 서 론	3.1 어린이도서 서평지와 구성 요소
1.1 연구 목적	3.2 어린이도서 서평의 내용분석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결 론
1.3 선행연구	<참고문헌>
2. 서평과 독서교육과의 관계	
3. 어린이도서 서평 분석	

< 초 록 >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서평이 독서교육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도서 교육은 비판적 독서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이에 어린이도서 서평을 기능에 따라 기술 서평, 해설 서평, 비평 서평으로 그룹화한 후에 그 구성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술 서평은 사실 전달에 충실한 자료로 신간도서안내, 이 달의 추천 도서 등 '시의성'이 중요한 자료 작성 시 적합하다. 해설 서평과 비평서평은 책의 내용, 스타일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서평자의 전문적 견해와 평가를 반영하여 작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 독자를 제시함으로써 독서 교육의 훌륭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要語: 서평, 어린이도서 서평, 독서교육, 기술 서평, 해설 서평, 비평 서평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청주기적의도서관 정보서비스팀장
(rosemkr@hanmail.net)

접수일: 2013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lements of the children's book review that performs the role as a reading education material. The goal of children's reading education is to raise critical reading ability. Therefore after grouping children's book reviews into the descriptive review, interpretative review and critical review, their composed elements of each reviews has deduced. As the descriptive review describes the contents simply, it is suitable to make timely materials, such as newly published book list and recommended books in this month. The interpretative review and critical review briefly describe the contents, the scope, and the style of a book; they assess its quality critically, suggests its potential audience, and reflects the book reviewer's opinions and assertions. Both reviews can be used for worthy reference materials in education of reading.

Key words: Book review, Reading education, Review of children's books,
Descriptive review, Interpretative review, Critical review

1. 서론

1.1 연구 목적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절부터 독서습관을 길러주고(IFLA/UNESCO Guideline), 어린이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독서 자료를 구비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 통계(2012)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한 해 동안 출간된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가 총 39,767종(학습참고, 만화 포함) 86,906,643부에 달하며, 이 중 아동 도서는 7,495종(26,537,234부)으로 전체 신간 발행 종수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¹⁾ 또한 1990년대 이후 괄목할 성장을 보인 어린이 문학의 발달은 관련 분야의 출판에도 영향을 끼쳐, 어린이자료 출판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수많은 도서들이 출간되면서 어린이독서지도 관련분야에서는 良書와 摘書의 선택이라는 커다란 고민에 놓이게 된다.

이용자(독자)가 원하는 자료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려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상업적 목적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서를 평가한 서평은 도서 선택 시 유용하고 기본적인 참고도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어린이 독서에 있어서 서평의 활용도를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5~10세)의 도서 및 도서관 이용 행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²⁾’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양육자들은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은 높은(57.6%) 반면에 독서지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취약(30.9%)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독서를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 <<http://www.kpa21.or.kr/>>.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5~10세)의 도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12).

『도서관정보관리편람』³⁾에 의하면, 서평은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신간자료가 출판되었을 때 자료의 내용에 대한 개략적 소개와 아울러 평가를 제공하는 이차자료로, 일반 독자에게는 독서의 길잡이로, 도서관에서는 자료 선택 시 보조도구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즉 서평은 독서지도를 위해서 서평 작성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비평을 한 것으로, 독서지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자와 도서간의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도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는 것⁴⁾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양육자를 비롯한 어린이독서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어린이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평을 통해 책과 저자에 관련된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독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독서는 독서습관 정착을 위한 목적과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학습 독서라는 두 가지 측면 즉 ‘독서를 학습’하는 것과 ‘학습하기 위한 독서’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단순히 책의 내용을 쫓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비판적인 태도로 책읽기를 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면적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독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평을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도서 서평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초점을 두어, 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서평이 독서교육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평’의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간행되고 있는 서평지를 선정하여 서평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서평의 구성 항목(요소)을 추출하고, 서평의

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873-874.

4) 민경록, “書評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7), 8.

기능(역할)에 준하여 각 항목을 구분하였다.

이에 국내 대표 어린이도서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 이야기』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책&』에 게재된 서평 중 어린이도서에 대한 서평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평 대상도서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인 도서관과 출판문화 분야의 대표기관에서 발간하는 서평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책 이야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도서관 이야기’에 게재된 어린이도서 서평만 별도로 합본하여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2012년 호에 게재된 서평 중 어린이도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2년 7월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대하여 출판문화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기획, 양서권장과 독서 진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1992년부터 발간해오던 전문서평지 『서평문화』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책&』의 ‘서평문화’ 섹션으로 옮겨 매월 2~4편 정도의 서평을 게재하고 있다. 2007년~2012년 간행된 서평자료 중 어린이도서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인쇄물 저널 등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는 어린이도서 서평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서평의 구성 항목 등을 고찰하였다. 서평 내용은 서평의 기능 - 기술 서평, 비평 서평, 해설 서평 - 에 준거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평 항목을 도출 후 독서 교육적 측면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구성 항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의 출판량이 급증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독서 진흥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도서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통한 자료선정과 독서지도의 활용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2차 자료인

5) 이민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혁신도시에 등지 틀다,” 뉴스웨이브, 2013.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52770>.

‘서평’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다.

장지숙(2004)⁶⁾은 어린이도서 서평매체를 사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료 선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일간지, 잡지에 게재된 어린이도서 서평을 선정하여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서평매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도서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도구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매체는 없다고 하였다.

이란주(2011)⁷⁾는 어린이자료 전문서평지 개발을 위하여 국외 어린이자료 전문서평지 4개와 국내의 도서관기관지 1개를 선정 조사·분석하여 구체적인 전문서평지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국내 어린이 전문서평지 개발을 위하여 서평지의 정책,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의 명시, 완전한 서지사항의 제공, 전문성 있는 서평자의 발굴, 자료의 강점과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자료 전문서평지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신간 자료의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사서 측면에서는 선정도구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심향분(2005)⁸⁾은 어린이도서 분야 중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그림책에 대한 서평을 다루었다. 저널에 게재된 그림책 서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서지정보 중 가격, 페이지수, 출판일 등이 저널마다 상이하게 게재되고 있으며 ISBN, 판형, 도서수준, 원본 출판일, 장르 등을 기재한 저널은 전무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자료 중 그림책 서평을 전문적이고, 정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간행물 발간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Dadson(1983)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625편의 서평을 샘플로 한 연구에서 아동 도서 서평의 내용에 있어서의 서술식 혹은 평가식 측면을 조사하였다. 조사

6) 장지숙, “어린이 도서 서평매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213-238.

7) 이란주, “어린이자료 전문서평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 12), 341-359.

8) 심향분, 현은자, “서평전문지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 분석 연구,” 『아동학회지』 제26권 1호(2005. 3), 203-216.

결과 몇몇 서평들은 서술식과 평가식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서평들은 전형적으로 줄거리, 구성과 등장인물,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그림책의 문학적, 예술적 질에 대한 토론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⁹⁾

김상호(2004)¹⁰⁾는 도서관은 독서진흥의 주체로서 독서진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서관이 서평 전문지를 발행해야 하며, 사서는 도서관의 자원인 장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서평을 작성하여 양서 독서를 권장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독자의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와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자유로운 사서는 지식 정보의 전달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문헌과 주제 분야에 관해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개별 서평뿐 아니라 특정 논제, 사건, 인물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한 데 비평하는 일괄 서평, 종합 서평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주제, 유형, 국가, 지역, 시대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독자의 도서 선택을 돕기 위해 양서를 선정하고, 추천도서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고 사서의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2. 서평과 독서교육과의 관계

버지니아 A. 윌터(2001)는 어린이도서관은 직접적인 어린이 서비스뿐 아니라 부모 및 아동의 삶에 관여하는 기타 성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모든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정보 욕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¹¹⁾고 하였으므로,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책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물론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해 놓은 서평을 직접적인 독자인 어린이는 물론 어린이들의 독서 문화 및

9) Janelle S. Dodson, “A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Picture Story Book Reviews Published in selected Journals during the Year, 1981,” (Ph.D. di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3). ; 심향분, 현은자(2005), 208. 재인용.

10)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사서의 목소리 내기,” 『書誌學研究』 第29輯(2004. 12), 345-360.

11) 엘리자베스 버드, 『아동문학의 보물들』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2), 29.

독서습관 형성에 관심이 있는 부모, 교사, 사서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서는 어린이도서의 출판 동향은 물론 독자들의 독서 욕구나 자료 이용행태 등에 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집단으로, 책과 독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서평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서평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토대로 그 유형 및 기능을 살펴보면, 서평자의 비판 없이 저자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적 서평(descriptive review), 서평자의 학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비평대상 도서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해 비평하는 비평적 서평(critical review)으로 분류하는데, 이천효(1996)는 이 두 가지 요소에 해설적 서평(interpretative review)을 첨부하였다. 이는 서평자가 비평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자의 정확한 의미파악과 언외의 의미파악 및 어려운 주제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Kennemer는 기술적 서평, 분석적 서평, 사회적 서평(Sociological review)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Bishop과 Van Orden(1998)은 서평의 기술방식을 ‘기술적인 설명’, ‘평가적인 설명’, 그리고 책의 대중성에 대한 예측이나 책의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과 같은 비문학적인 고려사항에 기초한 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회학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¹²⁾

서평대상 도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기술적 서평’은 사실 전달에 충실한 자료로, 신간도서나 이 달의 추천도서 등 ‘시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차자료 작성 시 기술 방법으로 적합하며, ‘비평적·해설적 서평’은 대상 도서의 내용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포괄하여 서평자의 학문적·전문적 견해와 판단을 토대로 하여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독자가 잘 모르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책과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적합한 독자층을 제시하거나 제언 등을 통하여 심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지도 자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 교육은 독서의 범위나 영역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각 분야의

12) 심향분, 현은자(2005), 207.

책을 조화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며, 비판적인 독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여 독서 내용을 실생활에 결부시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자주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도¹³⁾하는 것으로, 해설적·비평적 서평 작성법과 그 취지가 상응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평이 독서 교육적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설적·비평적 기능을 토대로 서평의 구성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독서 활동을 통한 학습이 지향하는 목표는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적 지식, 정서, 가치관, 규범 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생활 체험과 삶의 방식,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¹⁴⁾으로,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문학적 텍스트와 비문학적 텍스트로 표현된 다양한 책을 통해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창의력과 사고력이 심화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독서에 있어서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확장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제시한 서평은 독서지도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평은 적절한 지원체계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평은 독서 태도 및 습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독서교육의 방법 및 독서 자료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다.

3. 어린이도서 서평 분석

3.1 어린이도서 서평지와 구성 요소

서평은 대상 독자층에 따라 전문 영역별 학문적 가치를 평가하는 서평, 일반 독자들의 교양을 위한 독서 길잡이로서의 서평, 도서관 장서선택 시 중요한 자료

13) 양재한 외 저, 『독서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대구: 태일사, 2002), 50.

14) 조미아,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6. 9), 54.

가 될 수 있는 서평 등¹⁵⁾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서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둔 것으로, 어린이도서의 독자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지도하는 사서, 부모, 교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앞장(1.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도서 서평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출판 분야에서 발간하는 대표적 간행물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간행하는 『도서관이야기』에 실렸던 서평만을 발췌, 별도로 합본하여 격년으로 발간하는 『책 이야기』(2011년~2012년 호)에 게재된 서평은 ‘그림책/동화책’ 28편, ‘동시’ 20편, ‘청소년/문학 외’ 52편, ‘테마가 있는 책’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청소년 대상 도서와 테마가 있는 책을 제외한 ‘그림책/동화책, 동시, 문학 외의 서평’ 53편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간행되는 『책&』(2006~2012년 刊)의 색션 ‘서평문화’에 게재된 어린이도서 26편을 비교·분석하였다. 서평대상 도서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표 1> 「책&」, 「책 이야기」 수록 서평

간행물	서평 도서	
책&	그래, 책이야(2011)	노을-자연아 자연아(2007)
	서찰을 전하는 아이(2011)	꿈이와 오분돌이 아저씨(2007)
	봉주르, 뚜르(2010)	움직이는 몸(2007)
	위풍당당 박한별(2010)	하늘을 달리는 아이(2007)
	거짓말같은 이야기(2011)	새들은 시험 안 봐서 좋겠구나(2007)
	우리 동네 미자씨(2010)	이 세상에는 공주가 꼭 필요하다(2007)
	내 토끼가 또 사라졌어(2010)	처음 자전거를 훔친 날(2007)
	봄으로 가는 버스(2009)	다름이의 남다른 여행(2007)
	분노 폭발(2008)	플로라의 비밀(2007)
	예들아,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니?(2008)	건축가 김수근 공간을 디자인하다(2007)
	잘 한다 영광명(2008)	나의 큰 나무(2006)
	마지막 전철(2008)	퀴즈 왕들의 비밀(2006)
	지렁이다(2008)	웃이 나를 입은 어느 날(2006)

15) 민경록(1997), 105.

어린이도서의 서평에 관한 연구

간행물	서평 도서	
책 이야기	고양이야, 미안해(2011)	삼베 치마(2011)
	곰이 된 아빠와 스트레스 선생(2012)	공룡이 뚜벅뚜벅(2011)
	구덩이(2007)	그래도 괜찮아(2010)
	귀서각: 한밤에 깨어나는 도서관(2011)	꼬무락 꼬무락(2011)
	나도 최고가 되고 싶어요(2012)	동시는 똑똑해(2012)
	나랑 친구 할래?(2012)	떡볶이 미사일(2011)
	나미의 비밀친구(2011)	머릿속에 사는 생쥐(2010)
	나와 그 녀석의 마지막 경주(2011)	몽당연필도 주소가 있다(2010)
	내 짝꿍 드리타(2010)	바다는 왜 바다일까?(2011)
	늦둥이라도 괜찮아(2012)	백 점 맞은 연못(2012)
	동생 홍보기 대회(2012)	씨앗(2011)
	라이카의 별(2010)	아, 명랑대첩(2012)
	마음의 집(2010)	아무도 모르는 일(2010)
	머리 끝에 오는 잠(2011)	애들이, 연필사랑 놀자(2012)
	멍청한 두티 씨와 왕도둑(2012)	엄마보다 이쁜 아이(2012)
	멍청한 편지가!(2012)	엄마와 털실 뭉치(2012)
	빼약이 엄마(2011)	우리 사이는(2011)
	수박별이 꿩!(2009)	울 얘기 예쁘지(2012)
	어느 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2010)	좁이 쭈신다(2011)
	엄마하고 나하고(2011)	참 좋은 풍경(2012)
완벽한 가족(2010)	어린이 철학(2008)	
우리동네 전설은(2012)	행복 일기(2010)	
위고 카브레(2007)	장애란 될까?(2012)	
커졌다!(2012)	짜장면 더 주세요(2010)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도서관(2011)	초딩, 철학을 말하다(2012)	
패트리샤 공주는 아무도 못 말려!(2010)		
할머니 집에 갔어요(2011)		
호랑이 뱃속 잔치(2011)		

서평대상 도서는 대체적으로 출간된 지 1년 이내의 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픽션이 69편, 논픽션 10편으로 픽션(87%)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평을 신간도서 구입 및 자료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간 위주의 다양한 유형의 도서가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서 교육적 측면에서 서평을 활용한다면 간행 연도는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여겨진다.

「책&」, 「책이야기」에서 다룬 79편의 어린이도서 서평을 대상으로 내용 검토 후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과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서평 구성 항목을 서지정보와 내용 정보로 그룹화하고 그 하부

항목으로 세구분¹⁶⁾하거나, 장지숙(2004)은 서평이 선정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요소를 기본적인 서지사항, 서평의 설명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서평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한 항목¹⁷⁾으로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평의 역할에 따라 기술 서평, 해설 서평, 비평 서평으로 구분 후 서평이 독서교육 안내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를 도출해 보았다.

<표 2> 서평 구성 항목

서평 기능	성격	구성 요소	비고
기술 사항	서지 정보	① 서명, ② 저자명, ③ 번역자, ④ 삽화가, ⑤ 출판사, ⑥ 출판년도, ⑦ 페이지, ⑧ ISBN, ⑨ 가격, ⑩ 책표지(이미지)	
	서평 정보	⑪ 서평자명, ⑫ 서평자 직업/전공, ⑬ 서평 제목	
	도서 개요	⑭ 장르, ⑮ 내용(줄거리), ⑯ 주제, ⑰ 범위, ⑱ 캐릭터, ⑲ 문체, ⑳ 구성, ㉑ 판형/장정	
해설 사항	추가적 정보	㉒ 책 관련 정보, ㉓ 동일주제의 책 비교, ㉔ 동일저자의 작품 비교, ㉕ 저자의 히스토리, ㉖ 책 히스토리, ㉗ 연계자료(다른 매체), ㉘ 삽화/컬러	
평가 사항	평가 정보	㉙ 문헌사적 가치, ㉚ 평점/추천, ㉛ 서평자 견해 및 제언, ㉜ 흥미독자	

서평이 자료선택을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 입수 및 구입에 필요한 완전한 서지정보(서명, 저자명, 번역자, 삽화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ISBN, 가격, 책표지(이미지))와 서평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평자에 대한 정보(서평자명, 서평자 직업/전공, 서평 제목), 그리고 대상 도서의 내용적·물리적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관심 분야의 도서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도서의 개요(장르, 줄거리, 주제, 범위, 캐릭터, 문체, 구성, 판형/장정)를 기술(記述)한다. 즉 서평자의 개인적 견해를

16) Kay Bishop, Phyllis Van Orden, "Reviewing Children's Books: A Content Analysis," *The Library Quarterly*, vol.68 no.2(1998. 4), 145-182.

17) 장지숙(2004), 213-238.

배제하고 도서의 선정과 구입에 필요한 서지사항과 서평 대상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독자에게 책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치중한다. 여기까지는 서평의 기술 사항(記述事項)에 해당된다.

해설 사항은 책과 저자는 물론 내용적·형태적 사항(책 관련 정보, 동일 주제/작가의 작품 비교, 책 히스토리, 연계자료, 삽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독자 개인별 독서 능력은 천차만별로 같은 연령일지라도 이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 도서의 권장 독자 그룹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보편적 독자를 고려하여 권장 독자층에게 생소하거나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현상을 첨부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 도서가 문학류 일지라도 주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현상과 과학 기술적 지식·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을 근거로 한 문학적 상상력의 표현 등을 비교·분석하게 됨으로 책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독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사항은 상술한 모든 항목을 토대로 적합한 흥미독자 제시와 대상 도서에 대해 평가한 항목(문헌사적 가치, 평점/추천, 서평자 견해 및 제언, 흥미독자)으로 그룹화 했다.

3.2 어린이도서 서평의 내용분석

3.2.1 기술 서평

기술 서평(descriptive review)은 대상 도서의 내용, 형태 등에 대하여 서평자의 평가나 비판 없이 저자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Phyllis K. Kennermer¹⁸⁾는 캐릭터, 플롯, 테마, 삽화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18) Kathleen T. Horning, *From cover to cover: Evaluating and Reviewing Children's Books* (NY: HarperCollins Pub, 2010), 173.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책에 대한 내용 소개와 자료 입수에 필요한 서지정보가 해당된다. 이에 기술 서평에 포함되는 서평 항목으로는 ‘서지 정보’, ‘서평 정보’, ‘도서 개요’로 구분하였다.

<표 3> 기술 서평 항목

서평 기능	성격	구성 요소	비고
기술 사항	서지 정보	① 서명, ② 저자명, ③ 번역자, ④ 삽화가, ⑤ 출판사, ⑥ 출판년도, ⑦ 페이지, ⑧ ISBN, ⑨ 가격, ⑩ 책표지(이미지)	
	서평 정보	⑪ 서평자명, ⑫ 서평자 직업/전공, ⑬ 서평 제목	
	도서 개요	⑭ 장르, ⑮ 내용(줄거리), ⑯ 주제, ⑰ 범위, ⑱ 캐릭터, ⑲ 문체, ⑳ 구성, ㉑ 판형/장정	

첫째, ‘서지 정보’의 세부 항목으로는 서명, 저자명(공저자 포함), 번역자, 삽화가, 출판사, 출판년도, 책의 면수, ISBN, 가격, 책표지(이미지)가 포함된다. 독자가 서평을 읽고 도서구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문에 필요한 완전 서지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책표지 이미지는 독자 특히 어린이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원이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 목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출판 년도를 생략하여 도서관에서 도서 선정을 할 때 정확한 간행 시기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곤란하다. 지식·정보책 특히 과학 분야의 도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학설의 등장이나 내용의 수·개정에 따른 개정판 발간으로 발행 년도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독서 교육의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책 이야기」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서평 내용 중 ‘서지정보’ 소개에 대한 항목을 비교·검토한 바에 따르면, 「책&」은 서지정보에 대한 소개가 불충분하다. 2008년도까지 발행된 서평에는 ①~⑩ 중 ⑧(ISBN)을 제외하고는 ⑨(가격)까지 모두 기술했지만, 2010년부터는 ①(서명), ②(저자명)에 관한 정보만을 기술해 주고 다른 서지 항목에 대한 소개는 생략되거나, 서평 본문 중에 출판사, 삽화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어 서지 정보를 파악하기에 불편하다. 번역서의 경우는 번역자나 원서에 대한 소개도 대체적으로 생략하여 원저작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책 이야기』는 ⑧(ISBN), ⑨(가격)을 제외하고 ①~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평이 도서선정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⑧(ISBN), ⑨(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경우 별도로 가격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

둘째, ‘서평 정보’의 세부 항목으로는 ⑪(서평자명)~⑫(서평자의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력 등)을 토대로 서평 내용에 대한 신뢰의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개해야 하며, ⑬(서평 제목)은 서평자가 대상도서에 대한 핵심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 키워드의 구실을 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주제를 서평자가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책&』은 2008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⑪(서평자명)~⑬(서평 제목)에 관한 전체 정보를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⑬(서평 제목)이 생략되어 있고, 『책 이야기』는 모든 자료에 ‘서평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다.

서평자의 직업/전공은 『책 이야기』는 작가(25명), 사서/사서교사(11명), 평론가(10명), 아동문학가(4명), 연구원(3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은 교수/교사(3명/3명), 작가(11명), 평론가(5명), 연구원(3명), 언론인(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작가(36명), 평론가(15명), 사서/사서교사(11명), 연구원(6명), 교수/교사(6명), 아동문학가(4명), 언론인(1명) 순으로 나타났다. 『책 이야기』는 도서관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사서(사서교사)가 서평을 작성하는 비율이 약 21%로 나타났으며, 『책&』은 사서가 작성한 서평이 전무하다. 김상호(2004)는 독자와 저작자 사이에서 서평의 기능은 이용자와 장서 사이에서 책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추천하는 사서의 기능과 같다고 하며, 독자의 수준과 요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자유로운 사서가 서평 사서로 활동¹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 서평사서로서의 방법론과 지식, 전문성을 우선 갖추어

19) 김상호(2004), 351-354.

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 ‘도서 개요’는 책의 내용 및 편집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책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⑭(장르)에 있어서는 크게 ‘동화’, ‘동시’, ‘지식정보’ 등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역사 소설, 추리 소설, 판타지 소설, 연작 동시, 서사시 등으로 제시해 주기도 한다. 장르에 대한 소개는 아동문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동시에 작품의 특성도 제시된다. 예를 들어, 『책&』에서 『위풍당당 박한별』(박혜선)에 대한 서평을 작성한 ‘이상교’ 시인은,

“... (생략) 『위풍당당 박한별』은 한 어린이의 일상을 그린 연작동시이다. 연작의 특징인 줄거리가 곁들여져 있어 좀 더 흥미있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연작 동시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서평의 ‘해설적 기능’에 포함되기도 한다. ‘장르’는 두 간행물 모두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⑮(내용·줄거리)은 대상 도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서평 대상이 동시인 경우에는 본문에 수록된 몇 편의 동시를 선정해서 각 동시에 대한 소개와 설명글을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 서평은 원문헌에 대한 사전(事前) 정보 제공을 통해 도서 구입이나 독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소개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는 대부분의 서평이 내용 소개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도서에 대한 평가나 관련 지식/정보가 추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⑯(주제)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이다. 이는 상황별 독서지도를 위한 도서선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⑰(범위)는 대상 도서의 주제나 사건 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 후 대상도서에서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는 픽션보다는 논픽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연구 자료에서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었다.

‘도서 개요’ 항목에 대해 비교해보면 『책&』은 ⑭장르, ⑮줄거리, ⑯주제, ⑰캐릭터에 관한 소개는 거의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어 책의 내용에 대해 독자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간혹 ㉑(책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시리즈 정보에 대한 소개, 편집 및 전개 상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기도 한다. ㉒(문체)에 대한 기술은 거의 전무한 편인데, 『엄마보다 이쁜 아이』(정진아)에 대한 서평에서,

“... (생략) 동시 속에 남도 사투리를 잘 녹여놓았다. 할머니와 남도 사투리를 버무려 놓고 있어 더 정감이 간다. 오메, 어쩐다냐, 먹는당께, 썩어 빨 툇디 등 남도 사투리와 할머니라는 단어에서 우리나라의 음식은 맛은 동시의 또 다른 맛과 멋이 아닌가 한다.”

라는 설명을 통해 대상도서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㉓(구성)은 책의 내용적, 형태적 측면 모두 해당되어 설명되어 진다. 그림책의 경우 접지를 활용하여 제한된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여 표현한 작가의 내공을 칭찬하거나 시리즈물일 경우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통해 유사한 다른 도서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애들아, 정말 작가가 되고 싶니?』(이현)에 대한 서평 중,

“이 책은 <네 꿈을 펼쳐라>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직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과정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책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짜장면 더 주세요』(이혜란)에서,

“『짜장면 더 주세요』는 사계절출판사의 직업을 소개하는 ‘일과 사람시리즈’의 첫 편으로 짜장면을 만드는 중국집 요리사를 소개한다.”

도 마찬가지이다. ㉔(판형/장정)에 대한 항목은 두 간행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상도서의 형태적 특성에서 타 도서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내용에 비해 형태적 사항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생략했는지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서평에서 다루고 있는 ‘도서 개요’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장르, 내용,

주제, 캐릭터 등은 대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범위, 구성, 장정 등과 같은 해설적 기능을 겸비한 사항은 비교적 덜 다루어지고 있었다.

3.2.2 해설 서평

독서 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문학텍스트와 비문학텍스트의 병행 독서를 통한 비교·분석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서평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내용을 소개하거나 묘사하는 기술(記述) 서평보다는 대상도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독서를 통한 사고력의 심화·확장을 위해서는, 체계서지학적 관점에서 특정한 논제, 사건, 인물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비평²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평 대상도서로만 한정짓지 말고 주제, 사건, 인물, 시대, 관점 등 관련 있는 다른 저작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독창성 등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다각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서평이 독서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평대상 도서와 기존 도서와의 차별성, 독창성 등을 설명해 주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참고할 가치가 있는 정보나 다른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평자는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부차적으로 제공하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혹은 비유의 방법으로 표출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려운 주제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서평은 서평자가 대상 도서와 저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독서의 Tip과 용어 설명 등을 통해 심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당 도서의 독서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20) 김상호(2004), 358.

못했던 사항 등을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설 서평의 구성 요소는 저자 정보, 책 정보 및 주제와 관련된 사회·문화·과학적 현상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출하였다.

<표 4> 해설 서평 항목

서평 기능	성 격	구 성 요 소	비 고
해설 사항	추가적 정보	㉒ 책 관련 정보, ㉓ 동일주제의 책 비교, ㉔ 동일저자의 작품 비교, ㉕ 저자의 히스토리, ㉖ 책 히스토리, ㉗ 연계자료(교과서/다른 매체), ㉘ 삽화/컬러	

㉒(책 관련 정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㉓~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나, 주제적 성격과 형식적 성격에 따라 ㉓~㉘으로 세분하여 구분하였고, 그 외의 내용을 포함한다. ㉒에 해당하는 정보의 성격으로는 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어린이도서이므로 특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 보편적/사회적 경향을 설명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측면으로 접근하여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저술 동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이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책 내용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공간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독후 활동에 대한 tip을 제공하기도 한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강경수)에 대한 서평 본문 중 아동문학분야에서 그림책의 중요도, 역할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책에 관한 정보를 기술함에 있어 서두에,

“그림책은 아동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세계에 대하여 주제에 따라 픽션과 논픽션과 같은 각기 다른 형식으로 예술적인 그림과 문학적인 글로써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준다. 그림책은 종합예술로서도 손색이 없는 문학이다. [중략]. 매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전세계에서 출간되는 정보그림책을 대상으로 라가치상을 수요하고 있다. 2011년 라가치상은 강경수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거짓말같은 이야기’가 받았으며... (생략)”

라고 기술함으로써 그림책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한국 그림책 분야의 위상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다. 어떤 서평에서는 서평 대상 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고사성어와 연결하여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한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는 「내 토끼가 사라졌어」(모 윌렘스)에 대한 서평에서,

“... (생략). 이 책에는 ‘크너플 버니(knuffle bunny)’라는 토끼 인형이 등장하는데, ‘knuffle’은 어린이가 인형을 꼭 껴안는 것처럼 무언가를 바짝 끌어 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 ‘snuggle’의 네덜란드어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다니는 여자 아이 트릭시가 등장한다.”

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등장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스토리에 대한 복선을 제시하기도 한다.

③(동일 주제의 책 비교) 항목은 다각적인 사고의 접근 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다룰 때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두지 말고 관련된 주제의 책을 소개함으로써 병행 독서를 통한 사고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주제임에도 결론이 다르거나 혹은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도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향후 확장된 독서와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확립되지 않고 다양화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판과 분석의 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항목이야말로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한다면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렁이다」(차보금)라는 그림책 서평 내용 중,

“사실 지렁이가 흙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도 출신의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인 반다나 시바는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라는 책에서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작은 지렁이는 사실상 하나의 트랙터이자 비료공장이며, 다목적 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렁이가 살아가는 토양은 더 축축하고 더 많은 유기탄소와 유기질소를 갖고 있다. 또 지렁이는 계속해서 흙 속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땅 속 공기의 양은 30%까지, 토양의 물 저장 능력은 20%나 높아진다고 한다. 지렁이가 내놓는 배설물, 즉 분변토에는 탄소, 질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이 들어 있다.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관련 도서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관련된 지식·정보까지도 기술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확장된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도서를 소개하고 동일한 주제의 다른 도서(심지어 독자층이 다름)를 소개함으로써 세대 간 독서를 통한 독서 토론 등의 참고자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②(동일 저자의 작품 비교) 항목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작품과의 차이점, 그리고 작가의 작가관이나 관점의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책 읽기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잘한다 오광명」(송언)에 대한 서평에서 서평자는,

“「잘한다 오광명」은 「멋지다 썩은 떡」과 짝을 이루는 작품이다. 「멋지다 썩은 떡」을 읽어본 독자라면 그 작품 속에 이미 오광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잘한다 오광명」에서 만화책 가지고 아웅다웅 다툼을 벌이는 ‘썩은 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바로 「멋지다 썩은 떡」이다.”

라며 저자의 이전 작품에 등장했던 캐릭터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다른 책으로의 독서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전작의 등장 캐릭터가 다른 작품에 카메오로 등장함으로써 전해지는 즐거움 또한 독서의 즐거움에 한 몫을 한다.

「내 토기가 사라졌어」(모 윌렘스)에서는,

“... 전작과 유사하게 이번 작품에서도 트릭시는 토기 인형을 잃어버리고 다시 만나는 경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토기 인형과의 이별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이를 스스로 극복해가는 트릭시의 내면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과 큰 차별성을 보인다.”

라며 이전 작품과의 연계성 속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 동일한 소재로 진행됨에도 그 안에 등장 캐릭터의 내면의 성장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동일 작가의 작품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서평을 통해 관계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㉕(저자의 히스토리) 항목은 작가의 집필 경력, 수상 경력 그리고 작품관이나 독특한 이력 등을 알려준다. 이는 저술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봄으로 가는 버스』(전병호)의 서평에서는,

“전병호는 동시집을 출간할 때마다 늘 시적 변화라는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일관된 시 정신을 견지해 왔다. 그것은 소외된 대상들을 대하는 따뜻한 시심이다. 특히 시적 기교나 상상력으로 치장하지 않고 온전히 체험으로 산골 아이들의 삶을 그린 네 번째 동시집 『들꽃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내었다. (중략) 전병호의 동시집들은 삶 체험이 각기 다르더라도 세상의 모든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만은 하나같이 따뜻하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작가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작가의 사상과 문학관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잘한다 오광명』(송언) 서평에서는 작가의 변천사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작가의 관점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비평적·분석적 독서의 효과적인 정보원 역할을 한다.

“송언은 저학년 담임을 맡으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어린 아이들의 동심 속에 풍덩 빠져들고 만다. 『선생님 재가 그랬어요』(2003), 『엄마 우리 교실에 놀러 오세요』(2004) 등의 교단 일기를 통해 저학년 담임의 경험을 풀어내더니 『슬픈 종소리』(2004)를 통해 드디어 ‘동심의 작가’로 거듭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픈 종소리』에서 송언은 교단 일기를 쓰는 교사처럼 여전히 저학년 아이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언은 『멋지다 썩은 떡』(2007), 『김 구천구백이』(2007)를 통해 완전히 아이들 속에 녹아 들어간다.”

저자의 개인적 경력, 집필 경력, 수상 경력 등에 대한 소개는 작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책 선정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작가에 대한 설명은 사회적 환경과 맞물리며 또 다른 토론거리를 제공한다.

②6(책 히스토리) 항목은 해당 도서의 수상 경력, 판사항, 번역서일 경우에는 원서와의 관계 등을 설명한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위풍당당 박한별』(박혜선)은 1992년 새벗문학상 동시 부문 당선으로 등단한 동시인 박혜선의 동시집이다. 동시집 『개구리 동네 게시판』, 『텔레비전은 무죄』에 이은 세 번째 동시집이기도 하다.”

“『내 토끼가 사라졌어』(모 월웁스)는 2010년 가을 미국에서 출간과 동시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그림책 부문 1위를 차지하였으며,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2010년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독자는 작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책 선정에 중요한 도움 정보를 제공한다.

번역서일 경우 원서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하늘을 달리는 아이』(제리 스피벨리)의 경우 추상적 개념의 제목으로 내용에 대한 추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서평에서,

“원제목은 ‘매니악 매기’이다. (중략) ‘매니악’이란 무엇이든지 다 해낼만큼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란 뜻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 등장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런가하면 이 책은 뉴베리상 수상, 미국도서관협회 ‘최고의 책’ 선정, 마크트웨인상 수상, 스쿨라이브러리 ‘올해의 책’ 선정 등의 수상 경력이 있음에도 서평 내용 중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책 선정의 조건은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권위가 인정된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도서는 수상 정보를 제시하여 책 선정 여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수상의 선정 기준 등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한다면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질 것이다.

②7(연계자료) 항목은 서평 대상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미디어로 제작된 자료가 있을 경우 소개하여, 도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 저작을 다른 언어로 출간한 경우 혹은 형태 등을 달리하여 출간한 경우 소개하여 다양한 책 읽기를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은 영상이나 시청각 미디어에 익숙해져 책 읽기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다른 매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유도한 후 책을 소개함으로써 매체 간 표현의 다양성 등을 통해 책 읽기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지렁이다』(차보금)에서,

“... (생략).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환경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렁이다』 같은 그림책이나 『꿀벌 대소동』, 『호튼』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며 서평 대상도서의 주제인 환경교육에 관한 유사한 다른 매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책 『아버지와 딸』은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그림책으로 출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입체적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패러디 문학작품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특히 고전이나 우화, 옛이야기 등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거나 중심 캐릭터를 옮겨가면서 다각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원전과 패러디 작품을 병행 독서하며 분석·평가하면 독서의 본질적 목적인 다양성, 창의성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석한 다양한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저학년보다는 원전을 이미 독서한 경험이 있는 초등 중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의 방법이 될 것이다.

㉘(삽화/컬러)는 그림책이나 도감류와 같이 이미지, 사진 등이 글자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주로 다루어진다. 그림책의 경우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과 의도 등을 독자의 눈 높이를 고려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림책 『지렁이다』(차보금)에 대한 서평에서,

“『지렁이다』의 글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었고, 그림도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책의 앞과 뒷부분에는 지렁이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도 달아놓아 어린이들의 지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설명에서 ‘環帶’, 즉 암수한몸인 지렁이의 생식기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그림에서는 환대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림책의 특성을 토대로 글과 그림의 상호관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글에서 묘사한 지렁이의 형태적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지렁이의 형태에 대한 재확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작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움직이는 몸』(소재근)에서,

“그림을 그린 홍선주 작가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경쾌하게 표현하고 싶어, 힘 있고 경쾌한 춤을 추는 무용수를 등장시켰다. 특히 무용수들만 따로 필름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 근육과 뼈가 만들어내는 강한 움직임을 표현했고 배경 역시 강렬한 붓 터치로 힘 있고 경쾌한 느낌을 살렸다. 뼈에 대한 이 책을 열심히 그리다가 오른손을 혹사해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라는 설명을 통해, 그림의 표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그림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독후활동 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그리기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곰이와 오피돌이 아저씨』(권정생)에서는,

“화가 이담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흙빛을 띄고 있다. 왁스를 화면 전체에 두텁게 녹여 바른 다음 그것을 섬세하게 긁어내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유화 스프레이를 뿌려 마감을 하는 ‘왁스 페인팅’ 기법을 썼다고 한다. 평면에 그려지만 그 덕분인지 깊이 있는 입체감이 느껴지고, 죽은 자의 기억이 이런 것일까 싶은 아련한 거리감도 전해진다.”

라는 설명적 문구를 통해서도 그림 기법에 대한 그림 작가의 의도를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에 익숙하지

많은 독자들에게는 그림, 화가의 화법에 대한 설명적 정보를 통해 그림책 읽기의 재미를 전한다.

『거짓말같은 이야기』(강경수)의 서평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태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책을 받아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갱지 느낌의 종이에 그림이라는 하단에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 구멍이 전부인 표지이다. 열려 있는 맨홀뚜껑 옆에 구멍 안으로 놓여있는 사다리가 눈에 띈다. 표지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제목, 그리고 작가 이름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으며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다. (중략) 표지를 지나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가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는 본문의 두가지 서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의 이름정도만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로서 서로 다른 서체를 통해 다른 톤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의 서평자는 그림책교육연구가로 특히 그림책의 특징을 충분히 알고 형태적 측면으로부터 작가의 의도를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림책이 낯설거나 그림 읽기에 서툰 독자의 이해와 흥미를 돕는다.

『나의 큰 나무』(미셸 레디에)에서는,

“... 사실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림작가의 몇가지 해석과 원색적인 그림 표현이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잘 보완해주고 있다. 그림 화법의 거칠음은 그림작가 자신이 마티스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

이처럼 그림 화법에 대한 설명은 예술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독자로 하여금 다른 책으로의 독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평의 해설적 기능은 서평 대상도서 한 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확대·심화된 독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나 특성을 지닌 두 세권 이상의 도서를 서로 비교하며 내용적·형태적 제요소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다양

한 정보는 어린이 독자뿐 아니라 어린이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사서, 교사, 학부모 등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2.3 비평 서평

서평이 자료선정 시 선택보조도구로서의 기능과 독서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평 대상 도서와 기존의 도서와의 차별성, 독창성 등을 설명해 주고, 해당 분야에서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흥미 독자와 권장 독자를 추천한다. 즉 서평자가 자신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서평 대상 도서의 내용, 형태 등에 나타나는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표 5> 비평 서평 항목

서평 기능	성 격	구성 요소	비 고
평가 사항	평가적 정보	㉮ 문헌사적 가치, ㉯ 평점/추천, ㉺ 서평자 견해, ㉻ 흥미독자	

서평에 대한 제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서평이 비평과 평가가 생략된 단순 기술에 그쳐 서평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도서를 구입하거나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부모, 교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특히 권장 연령(학년)에 대한 제시이다.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헌사적 가치)는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과 해당 문헌의 독창성을 논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타 문헌과의 ‘차별’의 요점,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분석력을 키울 수 있다.

㉯(평가 및 추천) 항목은 서평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검토 분석 후 추천이든 비추천이든 평가를 한다.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풍당당 박한별』(박혜선)에서 서평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따금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동시와 마주치게 되는데 재미있게 읽히기는 해도 표현하는 말을 조금은 아꼈으면 싶다. 박혜선이 쓰는 시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늘어놓다 보면 장황스러운 시가 될 수도 있을 터다. ‘詩’란 무엇인가. 이따금은 조금 간결하자는 이야기다. 뛰어난 편편의 시들이 담긴 좋은 동시집 『위풍당당 박한별』을 읽는 동안 기쁨이 컸다.”

『분노 폭발』(에르빈 그로쉴),

“... 아쉬운 점은 첫째로, 이 책이 분노의 긍정적인 면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분노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건전한 불만이나 분노가 변화, 발전, 생산성을 낳으며 스트레스를 방출하며, 개방성을 증진시키며, 마지막으로 분노에 담겨있는 엄청난 힘은 우리가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동일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에너지나 용기를 낳을 수 있고, 부당함에 맞서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 둘째로,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파스칼이 선생님에 대해 화가 났다가 풀리는 과정이나 초피가 화가 많이 났다가 막상 개가 개서 물어보자 무서워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는 내용들은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

『다름이의 남다른 여행』(최유성),

“... (생략). 이 동화는 성공적인 바탕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런 작품이 성공하려면 과학과 상상력의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준 과학이 일천하고 상상력도 빈약하다. 둘째, 과학에 의해 꿈까지 조작되는 사회의 숨 막히는 모습, 그 속에서 찌들고 시달리는 동심을 생생하게 살려놓지 못했다. 따라서 풍자도 없고, 울림도 약하다. ... (생략).”

반면에 지나친 설명으로 독서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찰을 전하는 아이』(한윤섭)에서는 대상 도서가 추리적 코드로 전개되는 특징

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전의 결과까지 제시하면서 아동문학으로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책을 읽기 전 서평을 읽는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㉓(서평자 견해) 항목은 긍정이던 부정이던 평가를 한 이후에 해당 도서에 대한 비판적/교육적 견해를 제시한다. 서평 대상도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해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간혹 부모,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거나 혹은 아이들이 특정 도서를 지나치게 반복해서 읽는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문제의 도서를 들고 와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서평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평 대상도서의 대중성이나 잠재적 논란의 요지가 될 부분에 대한 서평자의 평가는 독자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찰을 전하는 아이」(한윤섭)에 대한 서평에서,

“동화로서의 흡입력을 지니려면 아이의 노력과 해결의지는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재미를 느낀다. 피땀 흘리며 목표를 위해 전진하려는 성취 동기를 아이들이 지니게 된다.”

라든가, 「지렁이다」(차보금)에 대한 서평 말미에,

“부모나 교사가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 두었으면 환경교육 교재로 더할나위 없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문제, 토양 속의 생물에 대한 설명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화학비료에 반대되는 것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두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어딘가에 간단한 설명을 달았으면 한다.”

와 같은 서평자의 견해는 독자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㉔(흥미독자)는 대상 독서에 적합한 학년/권장 연령 등을 제시한다. 물론 이것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독서를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독서지도를 함에 있어서 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게는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생 홍보기 대회』(정란희)에 대한 서평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라며 권장 독자를 서두에서 제시하며 시작을 한다. 『분노 폭발』(에르빈 그로쉴)에서,

“이래라 저래라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사춘기의 감정조절이 힘든 아이들이나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는 기술을 통해 적절한 독자층을 추측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비평 서평은 서평자의 판단에 의해 기술되는 것으로, 작가의 견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준거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특히 독서지도 방법, 독서자료 선택 등에 곤란을 겪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 서평을 기술적·해설적·비평적 기능으로 나누어 독서교육 자료로서의 역할을 위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았다. 기술 서평은 서지 정보, 서평 정보, 도서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도서 구입이나 신간 도서안내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해설 서평과 비평 서평은 대상 도서의 내용적·형태적 측면을 망라하여 서평자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을 근거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책 읽기의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정보원 역할이 가능하다.

4. 결 론

독서 진흥의 주체인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IFLA/유네스코 지침(2001)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읽기를 배우는 과정과 책 등 기타 매체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²¹⁾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린이자료를 평가한 서평이 독서교육의 참모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이 아닌 대상 도서와 연계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비평과 평가를 한 해설 서평과 비평 서평이 적합하다. 이에 해설 서평과 비평 서평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평의 구성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① 기술 사항은 서지 정보(서명, 저자명, 번역자, 삽화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ISBN, 가격, 책표지), 서평 정보(서평자명, 서평자 직업이나 전공, 서평 제목), 도서개요(장르, 내용, 주제, 범위, 캐릭터, 문체, 구성, 판형/장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는 도서의 선정과 구입에 필요한 서지사항과 서평 대상도서 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서평자의 개인적 견해를 배제하고 책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치중한다. 또한 독서지도에 있어서 관계 도서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해설 사항은 서평 대상도서 한 권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도서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책에 관련된 보편적인 정보(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용어 설명, 주제와 관련된 보편적·사회적·과학기술적 지식정보 제공, 책을 읽는 방법, 독후활동에 관한 팁 등), 동일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동일 저자의 작품 비교, 저자나 책에 관한 이력, 다른 매체로 표현된 동일 주제의 자료 소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해설 사항은 책과 저자는 물론 도서의 내용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서비스 지침: 영유아·어린이·청소년』(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1), 31.

적·형태적 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문학적·비문학적인 다층적 접근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평가 사항은 서평자의 학문적·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서평 대상도서의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서평 대상도서의 특징을 토대로 문헌사적 가치, 추천 여부, 서평자의 제언, 흥미 독자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한다.

이상적인 서평은 도서의 목차, 범위 그리고 체제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인 독자를 제안하는 것²²⁾으로, 서평 대상 도서의 독창성을 논하고 서평자의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여 내용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권장 대상 독자를 제시해 놓은 서평은 자료 선정뿐 아니라 독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참고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Kathleen T. Horning. *From cover to cover: Evaluating and Reviewing Children's Books*. NY: HarperCollins Pub., 20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서비스 지침: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5~10세)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201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 이야기』.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2.

양재한 외 저. 『독서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대구: 태일사, 2002.

엘리자베스 버드. 『아동문학의 보물들』.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2.

22) Kathleen T. Horning(2010), 17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 서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논문]

Kay Bishop and Phyllis Van Orden. “Reviewing Children’s Books: A Content Analysis.” *The Library Quarterly*, vol.68 no.2(1998. 4), 145-182.

Janelle S. Dodson, “A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Picture Story Book Reviews Published in selected Journals during the Year, 1981,” (Ph.D. di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3).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사서의 목소리 내기.” 『書誌學研究』 第29輯 (2004. 12), 345-360.

민경록. “書評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7.

조미아.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6. 9). 53-71.

심향분, 현은자. “서평전문지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 분석 연구.” 『아동학회지』 제26권 1호(2005. 3), 203-216.

이관주. “어린이자료 전문서평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4호(2011. 12), 341-359.

장지숙. “어린이도서 서평매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91-118.

[참고 웹사이트]

이민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혁신도시에 둥지 틀다.” 뉴스웨이브, 2013.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52770>.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

